

꿈에도 보이는 그곳, "내 독도"

<3부> '잠녀를 만나다' <141> 독도잠녀6

등록 : 2009년 09월 15일 (화) 15:44:37
최종수정 : 2009년 09월 15일 (화) 15:44:37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 10년 넘게 독도 물질을 한 탓에 지금도 그곳이 눈에 선하다는 홍순화 할머니. 지금 와 남아있는 것은 없지만 독도에 대한 애정만큼은 여전했다.

갈매기 울음 소리가 그렁그렁 귀에 와 맺힌다. 오래 잊었던 곳이건만 '독도'라는 단어는 잘 잠전된 총의 방아쇠를 당긴 것처럼 홍순화 할머니(89)의 기억의 물꼬를 댔다.

그동안 물질이 어땠는지, 사는 것이 어떤지를 묻는 질문에 연신 탄소리를 하며 취재가 제대로 될까 의구심까지 들게 했던 것도 잠시, "내 독도"라는 홍 할머니의 말에 이내 고개가 끄덕여진다. 그 곳에 묻힌 그녀의 삶은 그만큼 녹록치 않았다.



▲ 홍 할머니는 지천이던 갈매기 알을 가슴이 아파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한다.

큼 독도도 다녔다.

홍 할머니의 독도 생활은 지긋지긋할 만큼 많았던 미역과 차좁쌀밥으로 기억됐다.



▲ 홍 할머니가 지키던 산신 대신 태극기가 걸려 있는 독도 물골.

생하다.



▲ 독도에서는 지금도 해풍에 미역을 말리는 모습이 흔하다

보다"하는 홍 할머니의 눈가가 반짝인다.

자칭 타칭 울릉도 '공동 삼촌'

먹고 살기 위해 반평생 넘게 바다에 들어간 것이 무슨 죄일까. 오랜 물질이 남긴 상처는 컸다. 귀에 다 대고 크게 또박또박 말하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청력을 잃은 데다 무릎이 불편해 보조기가 없으면 집 안 거동도 힘들 정도다.

잔뜩 굵은 허리가 불편해 보였지만 오랜만에 사람 왕래가 있는 것에 흥분한 표정의 홍춘화 할머니(89)는 생각보다 또렷한 목소리로 '독도'를 기억했다.

울릉도에서 바깥물질만 13년을 했다. 그 햇수만

홍 할머니는 다른 말은 여간해서 못 알아듣는 등 생뚱맞은 답변을 하면서도 '독도'라는 말에는 유독 눈을 반짝였다.

"'내년에는 안 오쿠다'하는 말이 입에 달릴 정도였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면 눈 앞에 독도 바다가 있었다"는 말은 홍 할머니와 같은 시대를 살며 독도 바다에서까지 물질을 했던 제주 잠녀들의 삶을 대변했다.

독도 물질은 쉽지 않았다. 미역바다를 돈을 주고 사지 않으면 작업조차 어려웠던 탓에 미역 판 돈을 전부 들여 채취허가를 받았다. 농담처럼 '(돈이 안 모이면)독도 바다가라도 가져오주'했던 기억도 생

하루 한사람이 3시간씩만 작업을 해도 3~4가마니는 거뜬하게 채울 정도로 미역이 지천이었다. 제주 잠녀들의 실력은 그 곳에서도 유명해서 돌아가지 못하게 빗잡 같은 채취 도구나 행랑을 뺏어 주지 않는 일도 다반사였다.

그렇게 13년을 울릉도며 독도를 오가다 보니 안면이 있는 사람 모두 홍 할머니를 '삼촌'이라 불렀다. 13년 동안 식사 당번을 도맡은 홍 할머니가 자신하는 메뉴는 다음아닌 '차좁쌀밥'이었다.

"당시 동도에 있던 수비대원이 잠녀들이 사는 서도까지 바위산을 넘어 찾아와 얻어먹었을 정도였다"며 "그렇게 많이 나눠줘서 이렇게 오래 사는가

"누가 뭐래도 '내 독도'주"

독도 작업은 생활력 강한 제주잠녀에게도 여간해서 견디기 힘든 일이었다. 몇 번 작업을 하고 나면 쉽게 포기하기 일쑤였다. 익숙치 않은 바다에 막연한 불안감, 습하고 변화무쌍한 날씨까지 발목을 잡았다.

홍 할머니는 "물골에 있는 동자석 모양의 산신에 제를 지내는 등 정성을 들였다"며 "10여년 넘는 독도 물질 동안 크게 다치거나 죽은 잠녀가 없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라고 자신했다. 잠녀들은 몰라도 당시 경비대원은 그런 홍 할머니를 신기한 듯 지켜보기도 했다고 했다.

10년 넘게 오가다보니 지역사람이나 진배없었다. 홍 할머니는 "'홍순화'이름으로 소라 등 채취허가를 받았다"며 "그러다보니 날씨 때문에 열사나홀을 하릴없이 기다리는 일도, 작업일수를 열흘도 채우지 못해 섬을 나오는 일도 감수해야 했다"고 말했다.

독도에는 지천이라 배고픔을 덜기 위해 절벽에 오르는 일까지 마다않았던 다른 잠녀들과 달리 홍 할머니는 갈매기알에 손을 대지 않았다. "자기 새끼라고 물어대는데..., 가슴이 아파서 주으려 다녀보지도 않았고, 삶아 건네는 것조차 먹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독도에서의 추억이라고는 소박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간신히 허기를 채우고 자갈밭에 누워 잠을 청했다.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마실 물도 모자라 힘겨울 때도 바다에 몸을 맡기는 일 만은 쉬지 않았다.

"나만큼 다닌 사람도, 정성을 들인 사람도 없으니 말그대로 내 독도"라는 홍 할머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고 가족을 꾸리기는 했지만 오랜 바깥 물질 뒤에 남은 것은 비바람을 피해 몸을 누일 수 있는 집 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아직도 바다가 부르는 것 같은데 이제는 나이가 들었다고 작업을 못하게 해" 앞만 보며 흘러가버린 세월에 대한 야속함과 아쉬움을 반씩 섞은 듯한 홍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질 않는다